

##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 경 은<sup>†</sup>

세명대학교


최근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현상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주로 지목되는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을 깊이 탐구해 봄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성인 초기 남성 6인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자료를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인 현상학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34개의 소주제와 9개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내하며 견뎌온 피해’, ‘내로남불의 끝없는 갈등’, ‘관계 만족도가 떨어진 연애’, ‘피해 양값음으로 시작된 가해’, ‘가해 행동에 대한 정당성’,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분노와 수치심’,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동’, ‘참다가 터져버린 가해의 억울함’, ‘남자만 지목되는 사회의 부당함과 여성증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성인 초기 남성들의 폭력과 관련된 인식을 비롯하여 분노조절의 어려움 및 높은 폭력 허용성과 사회적 역할기대로 부과된 무의식적 압력 등의 영향을 드러내 줄 수 있었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가운데 논의하였고,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성인 초기, 남성, 가해, 현상학

\* 본 논문은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박경은,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공학관 219-2호

Tel: 043-649-1662, E-mail: p4a7r4k3@semyung.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3년 2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며 연인을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인이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잘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2023. 02. 14). 같은 달, 제주의 한 20대 남성 또한 연인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JIBS 제주방송, 2023. 02. 12).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실정에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2021)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으로 범죄 신고가 된 건수는 2020년 1만 9,940건이었던데 반해 2021년 5만 7,29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서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만 2천 767건으로 2021년도 대비 약 27.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해가 더해갈수록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높아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30대에서 58.3%를 차지하고 있어(경찰청, 2017),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초기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Abramsky et al., 2011)가 있어, 이를 검증하고 확장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들은 데이트폭력이 양방향 폭력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성별 인식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taus, 2008, 2011). 그러나 여전히 데이트폭력 가해는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남성의 폭력이 보다 치명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의 결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은 심리적 폭력의 가해를 더 많이 행사하고(오윤희, 임성문, 2019; 장정운, 강지현, 2017), 남성은 성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의 가해를 더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들(김래은, 구상미, 최선미, 2020; 장정운, 강지현, 2017)이 있다.

데이트폭력은 낭만적 관계에 있는 남녀 중 한 상대방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Anderson & Danis, 2007). 이후 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이 정의를 따르고 있으나(Shorey, Cornelius, & Bell, 2008), 데이트폭력의 가해의 범주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비롯해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Fawson, 2015; 홍영오, 2017), 초창기 데이트폭력은 때리기, 목조르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등의 신체적 폭력만을 해당 범주로 한정했으나(Sugarman & Hotaling, 1989). 이후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적 폭력을 데이트폭력 범주 안에 포함 시키게 되었다(Campbell, 2002). 더불어, 언어폭력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폭력 또한 상대방에게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데이트폭력 범주 안에 이를 포함 시켰다. 심리적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 비방, 헐박, 통제 및 극심한 질투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언어폭력을 비롯해 침묵, 무시 등의 비언어적 폭력 또한 포함한다(Straus, 2004).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탐구한 연구들은 크게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과 관계적 및 상황적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를 Flynn과 Graham(2010)은 데이트폭력의 가해 동기를 세 단계로 나눈 모델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

는 가장 먼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 및 자라온 환경의 영향(background and personal attributions)을 뜻한다. 여기에는 양육 환경 및 과거 폭력 경험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삶의 환경(current life circumstances)으로, 여기에는 관계 만족도를 비롯해 생활상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근접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적 촉발요인(immediate precipitators)이 해당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 정서, 심리 상태를 비롯한 상대방의 도발 등 상황적 요인이 포함된다. 이 모델은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Elmqvist et al., 2016; Neal & Edwards, 2015),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Flynn과 Graham(2010)이 제시한 세 단계를 포괄하는 연구는 향후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앞서 소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각 세부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은 비교적 지속 되어 온 연구들이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Tyler, Brownridge, & Melander, 2011), 그중에서도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기 학대 등의 피해 경험은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영오, 2017). 그러나, 개인의 내적 요인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 및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 등은 최근 데이트폭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제시되면서(Jennings et al., 2014),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 및 데이트폭력 가해 동기의 근접요인들을 더 탐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인 초기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는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이다(Erikson, 1998). 이성 교제는 원 가족을 벗어나 연인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발달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Furman & Shaffer, 2003).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내재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형태를 이성 관계 속에서 재현하며,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을 보상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출현시킬 수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부 민감성은 생애 초기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다(신지연, 최수미, 2017).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거부 민감성이 높아 타인의 거부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대감을 느껴 공격성이 상승해(Ayduk, Gyurak, & Luerssen, 2008), 이를 분노표출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외에도 폭력 가해 관련 요인으로는 폭력 정당화, 경계선 성격장애 요인(홍영오, 2017)을 비롯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및 성역할 태도, 폭력 허용도 등의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이미호, 2020).

개인의 고착된 심리 내적 요인 이외에도 이성 교제 속에서 느끼는 관계 만족도는 데이트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예를 들어,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해 행동은 감소한 반면(Kaura & Lohman, 2007),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해 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 Fremouw, 2001; 오선영 & 김영희, 2007). 관계 만족도에는 두 사람의 애착 유형 및 갈등 해결 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성인 애착은 두 사람 모두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관계

만족도가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반면, 한 명의 상대라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은, 이위갑, 2005; 김명숙, 2008). 또한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비난 등의 부적응적인 방식인 경우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rammer, 2000). 그러나 관계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다양함으로 이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Flynn과 Graham(2010)이 제시한 근접요인이 관계 만족도에 기여 하는 바를 경험적으로 탐구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의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 가운데 젠더 이론은 사회적 구조 속에 형성된 성별 권력의 위계를 조명하며, 젠더 인식의 차별이 만들어 낸 폭력의 구조를 밝혀내고자 한다(김진숙, 문화진, 2021). 이에 따라 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가 만들어 낸 성별 권력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인식의 확장을 촉구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일수록 남성은 권력 지향의 주도성을 행사하고, 여성은 순종 지향의 순응성을 실현하는 가운데 데이트폭력이 자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Lichte & McCliskey 2004). 최근에는 권력의 성취에 도태된 남성이 자신의 분노를 힘없고 약한 대상에게 표출함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데이트폭력을 남성성의 폭력(masculine violence)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Chodorow, 2011). 젠더 이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조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젠더 이론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최근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과 관

련된 현상이 있다면 이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의 동기를 탐구한 연구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 동기가 각기 다를 수 있고, 한 상대의 가해 행동에 대한 다른 상대의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2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동기를 탐구한 Kelley, Edwards, Dardis와 Gidycz(2015)의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가해 동기로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 것은 ‘감정 표현 및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로 인해 자행된 가해에 대하여 남성은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은 위의 동기로 자행된 가해에 대한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해의 동기로 도출된 것에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통제’ 동기가 있었다. 이 동기로 인한 가해는 남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통제 동기로 인한 신체적 폭력에 대하여 남녀 모두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해의 동기로 상대의 가해를 ‘방어’하기 위한 동기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현황과 동기에 대한 남녀 차이를 탐구한 오윤희(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트폭력 동기의 성별 차이에서는 남성의 경우 정서/정신/신체 가해 동기가 유의미했던 반면, 여성의 경우 힘/권위에 의한 가해 동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힘과 통제의 동기는 Kelley 외(2015)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오윤희(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힘과 통제 동기의 성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Kelley 외(2015)의 연구에서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데이트폭력 가해는 두 성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력 허용도는 여성에게서만 높게 나타나, 성별의 차이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 문제 극복을 위한 접근에 보다 실효성있는 방향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로 주로 지목되어 온 남성에게 부과된 젠더 관점의 영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둘째, 데이트폭력 가해의 동기는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관여하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구해 보기 위하여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로 주로 지목되어 온 남성 경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필두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

저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은 주로 지인의 소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본 연구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참여자 모집을 진행했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지원자를 모집할 수가 없어 연구자는 일전에 경찰청 용역 과제로 친분을 맺게 된 형사를 통해 관련 주제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성 교제로 잦은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겪었던 세 명의 남성 지원자들을 소개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데이트폭력의 주제로 여러 번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일전에 피해와 가해 경험주제로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성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참여 요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두 명의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일전에 데이트폭력의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여성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신의 연인인 남성 지원자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여섯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3명은 학생, 2명은 취업준비생, 1명은 자퇴 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쉬는 중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1년 이상의 교제 기간을 유지했는데, 2년 이상의 교제를 한 참여자는 3명, 1년 이상의 교제를 한 참여자 또한 3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교제 기간은 1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형태는 정신적,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갈등해결책도의 문항을 소개하고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행사한 폭력 행위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해당 범주들을 확인하였다. 정신적 가해를 한 참여자는 여섯 명, 언어적 폭력을 한 참여자는 두 명, 신체적 폭력을 한 참여자는 세 명, 성적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직업	교제 기간	폭력 형태	비고
1	20	학생	2년 1개월	정신적, 신체적	한부모(부모 이혼)
2	20	학생	1년	정신적, 신체적	한부모(부모 이혼)
3	24	학생	2년	정신적, 언어적	한부모(부모 이혼)
4	26	취업준비생	2년	정신적, 신체적	한부모(모의 알콜 중독)
5	20	-	1년 6개월	정신적, 언어적	한부모(부모 별거), 자퇴
6	24	취업준비생	1년	정신적, 성적	-

폭력을 한 참여자는 한 명이었다. 인터뷰 당시 참여자들로부터 수위 높은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성적 폭력은 모두 중단한 상태였고, 다른 유형의 폭력들 또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받았다. 이외 특징적으로는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다섯 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부모의 이혼과 별거를 경험했고, 한 부모 밑에서 자라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명의 참여자는 모의 알콜 중독으로 인해 가정 내 어려움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한 명의 참여자는 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졌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참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를 두 주 이내 전사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 해당하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전달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동

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도중 또는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포함한 사항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일체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보장이 될 것이며, 인터뷰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인터뷰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병행하였는데, 1차적으로 오프라인은 \*\*경찰서의 사건 진술실 및 스테디카페 스테디룸(회의실)을 활용하였다. 수위 높은 폭력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의 경우 연구자 지인인 형사를 통해 경찰서 내 사건 진술실을 제공받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건 진술실은 최근 리모델링을 하여 한 공간을 상담실과 같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건 진술실에서는 형사를 통해 소개받은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참여자는 이미 여러 차례 해당 공간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형사와도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진술실 자체가 주는 위압감은 덜 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스테디카페 스테디룸(회의실) 또한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온라인은 2차로 인터뷰가 필요하였던 경우 진행했는데, 중

(zoom)을 활용하였고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아 전화로 전환해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최소 60분에서 최대 80분까지 1차로 실시하였고, 미지한 부분에 대한 추가 2차 인터뷰는 3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 내용들로 자유롭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항, 관계 갈등 및 폭력과 관련된 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고, 몇 가지 예시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갈등 및 폭력 관련 문항에서는 참여자들이 보고한 갈등책략척도의 폭력 범주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들의 진술을 따라가며 당시 갈등 및 폭력과 관련해 두 사람이 힘들게 여긴 부분을 객관화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아래 제시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진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완성한 인터뷰 녹음 파일은 모두 2주 이내로 전사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의 본질을 탐구해 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 분석 방법 가운데서도 현상학을 통해 분석하였다. 현상학은 한 개인의 체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의 의미와 인식을 통해 한 개인의 경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Husserl, 1948). 본 연구에서 현상학을 선택한 이유는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의 이성교제와 그 안에서 일어난 갈등 및 폭력 경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주로 남성이며, 실제 여러 치료 기관 및 관찰소 등에 수감된 가해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억울함과 사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 볼 때,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초기 남성들의 그 경험

표 2. 인터뷰 질문 문항 예시

이성교제 관련 문항	연인과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친밀감 및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관계 갈등 및 폭력 관련 문항	연인과 있었던 갈등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인터뷰 시작 전 체크한 갈등책략 척도) 여기에 표시된 00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생각,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사람에게) 교제 시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이와 관련된 핵심 감정(마음)은 무엇이었나요?
폭력 및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 문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셨던 방법이 있으셨나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이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본질을 깊이 탐구해 보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놓쳐 왔던 현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인 "현상을 체험한 주체자가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그 경험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답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물음을 필두로 본 연구에서는 Giorgi (1985)가 소개한 4단계를 따라 연구 분석 절차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거쳐야 하는 단계는 연구자의 선지식을 점검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왔기 때문에 앞선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생긴 선입견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연구자는 피해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생긴 가해 남성에 대한 선입견을 괄호 치기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데이트폭력, 가해, 피해, 데이트폭력 동기, 개입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을 명료화하면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첫 번째 단계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공통된 주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로 참여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경험의 본질에서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의미 단위들을 유목화 해 나갔다. 세 번째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변환시켜 그 의미가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모아진 자료들을 앞선 의미 단위들에 맞추어 근거가 되는 주제들로 제시하였다.

## 과정 평가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이 소개한 세 집단의 감사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집단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및 관계 이슈 등의 관심을 갖고 질적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 연구 결과에 첫 번째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묶여 하나의 대주제로 제시하였던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데이트폭력의 상황적, 맥락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별도의 소주제로 묶어 제시하였다. 또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분노와 수치심',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동', '참다가 터져버린 가해의 억울함'이라는 대주제가 처음에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었는데, 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사회적 인식이 성별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쳐 분출한 분노와 충동적이고 주체하기 힘든 분노의 경험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대한 감사자 평가는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참여자들에게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연구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자신들의 과오만 들춰질 것에 대한 염려가 깊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억울함 및 부당함 등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연구 결과가 담아내고 있어 안심이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터뷰를 한 것만으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니 더욱더 자신들의 문제를 핵심적으



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았다고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해당 주제에 부합한 성인 초기 남성 1인으로, 연구 참여 독려를 하였지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였다. 마지막 감사자를 통해서도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경험을 전부 똑같이 드러내 주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동감할 수 있는 결과들이었고 남성들 또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전달받았다.

## 연구 결과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은 34개의 소주제와 9개의 대주제로 유목화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여자 친구의 통제, 구속, 질투, 요구 등의 집착을 감내해야 했고, 가벼운 신체폭력에서부터 선명한 멍 자국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신체폭력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이성 교제 갈등의 주요 주제는 남자사람친구(남사친), 여자사람친구(여사친)로, 연인을 둘러싼 주변 이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러 이유들로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고 연인의 집착을 견디기 힘들었던 참여자는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가한 가해는 대다수 연인의 가해 행위를 따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가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고,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수위 높은 폭력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과 주체할 수 없는 충동성 분노에 휩싸인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한 번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들은 남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인식의 부당함, 여성에 대한 증오심 등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고, 각각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표 3과 같다.

### 인내하며 견뎌온 피해

참여자들은 이성 교제 후 연인으로부터 심리적, 신체적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하였다. 연인의 일상 통제와 구속, 질투를 감내해야 했고, 여러 가지 요구와 신체적 폭력을 감내하였다고 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예외적이라 할지라도 통제 및 구속, 질투와 요구 등의 심리적 폭력은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초기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폭력의 내용적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 또한 폭력의 희생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연인의 일상 통제를 감내함]

그렇게 늦은 시간에는 무조건 와야되고 누구누구 있는지 보내는 것도 솔직히 귀찮아요. 근데 보내야 되고.. (사례5)

#### [연인의 신체폭력을 감내함]

멍 들었어요. 꼬집혀서. (집에 가서 옷 벗고 밥 먹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여자 친구가 그랬다면 엄마 마음 아프니까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쳤다. (사례1)

#### [연인의 구속을 감내함]

만나 있던 시간이 더 많긴 한데 안 만나

표 3.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의 주제

대주제	소주제
인내하며 견뎌온 피해	[연인의 일상 통제를 감내함] [연인의 신체폭력을 감내함] [연인의 구속을 감내함] [연인의 질투를 감내함] [연인의 요구를 감내함]
내로남불의 끝없는 갈등	[자기는 되고 나는 안되는 이성 문제] [이해와 타협이 없는 이성 문제]
관계 만족도가 떨어진 연애	[사귄 뒤로 흥미가 떨어짐] [연인의 집착에 지치고 힘들어짐]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어 서운함이 쌓여감] [다른 사람처럼 연인 또한 신뢰하지 않음] [고통스러운 부모의 기억이 떠올라 싫어짐]
피해의 양끝음으로 시작된 가해	[연인의 통제행동을 따라함] [연인의 언어폭력을 똑같이 시작함] [연인의 분노표출을 어느 순간 닮아감] [연인의 폭행에 대항함]
가해 행동에 대한 정당성	[나의 통제는 가벼운 것이었음] [나의 폭력은 실수였음] [나의 집착은 당연한 것이었음] [나의 화는 정당한 것이었음] [나의 강요는 연인을 위한 것이었음] [나의 성행위는 귀여운 괴롭힘이었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분노와 수치심	[타인의 시선에 건드려진 자존심]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니까 일어난 분노] [여자에게 맞아 자존감이 바닥나는 수치심]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동	[화를 주체 할 수 없어 자행된 폭행] [이별 이후 더 심해진 충동성 폭행] [어려서 조절을 배우지 못한 분노]
참다가 터져버린 가해의 억울함	[이성을 상실한 참을성] [감정에 휘둘리는 통제력] [이해 불가로 터져버린 인내력]
남자만 지목되는 사회의 부당함과 여성증오	[여성의 폭력은 묵인하는 시선의 부당함] [신고 후 남자만 가해로 인식되는 부당함] [신고당한 이후 생긴 여성 증오]

고 있으면 진짜 거의 밥 먹는 거나 뭐 씻는거나 자는거나 아니면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사례2)

[연인의 질투를 감내함]

집착이 심했어요. 여자가 껴 있는 술자리에 가면 질투를 하거나.. 그런것들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례4)

[연인의 요구를 감내함]

한 명의 종이 된 것 같으니까. 가방도 제가 다 들고 과제도 제가 도와주고. (사례6)

### 내로남불의 끝없는 갈등

성인 초기 이성 교제의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를 지칭하는 이성 문제였다. 이 주제 또한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갈등 요소로 성인 초기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다른 이성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신경전이 상당히 주요한 관계 역동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 초기 주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친밀감(Erikson, 1998)을 발달시켜 감에 있어 이성 교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Furman & Shaffer, 2003)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여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있으므로 이를 잘 다뤄 나가는 것이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커플 상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는 되고 나는 안되는 이성 문제]

자기가 이성 문제를 제일 싫어하는데 자기가 이성 문제를 만들고. 이게 너무 내로 남불인 거예요. (사례5)

[이해와 타협이 없는 이성 문제]

여친이 그냥 남자애랑 룸 카페에서 있다가 한번 걸렸었는데. 저는 그냥 막 만날 때도 애는 막 진짜 친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 별로 안해 줬어요. (사례2)

### 관계 만족도가 떨어진 연애

참여자들은 서서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썸을 타면서 구애를 하던 시절에는 연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가 교제 이후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연인의 집착이 서서히 힘들고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편 연인과 항상 많은 시간을 공유해 왔던 참여자는 연인의 관심이 줄어든 것을 느낄 때마다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갔다고 하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참여자는 연인의 다른 이성 문제로 인하여 불신이 더욱 쌓여가는 경험을 하였고, 연인이 고통스러웠던 부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싫은 감정이 촉발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만족도는 상대 연인에게 영향을 미쳐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또 다시 자신의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도록 했다.

[사귀 뒤로 흥미가 떨어짐]

사귀고 나서 한 두 달 지나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사귀려는 흥미 (사례1)

[연인의 집착에 지치고 힘들어짐]

너무 지나친 간섭과 너무 지나친 억압으

로 헤어진 적도 있었어요. 억압이 되게 힘들었어요. (사례3)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어 서운함이 쌓여감]  
시간내서 맞춰주며 항상 여친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 있는데도 계속 막 자기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생각이 들면.. (사례2)

[다른 사람처럼 연인 또한 신뢰하지 않음]  
원래 안 그래도 사람 그렇게까지 잘 믿지 않는데 여친을 너무 못 믿을 것 같아서.. (사례5)

[고통스러운 부모의 기억이 떠올라 싫어짐]  
여자친구의 잦은 술자리가 싫고 화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술에 의존하는 게 너무 심해서..그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막 깨부수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례4)

#### 피해의 양값음으로 시작된 가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해 행위는 연인의 폭력에 대한 양값음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의 가해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드러낸 것일 수 있고, 가해 동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례3의 참여자는 ‘지기 싫어서’ 연인의 언어폭력을 따라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속에서 남성들에게 부과된 ‘힘’의 이슈 및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힘과 권력의 기대가 연인 관계에서 균형을 상실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해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인의 통제행동을 따라함]

연락이 안될 때 계속 전화하다가 제가 만약에 연락이 안된다면 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애 어딴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고.. 저도 여친 연락이 안되면 걔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사례2)

[연인의 언어폭력을 똑같이 시작함]

나도 빠 이러면서 욕을 이제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기 싫다는 생각이. (사례3)

[연인의 분노표출을 어느 순간 닮아감]

(여친이 화를 내니 자신도) 어느 순간 똑같이 좀 화를 내더라고요. (사례4)

[연인의 폭행에 대항함]

만나서 진짜 서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손지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짜증 나서 막 밀고. (사례2)

#### 가해 행동에 대한 정당성

참여자들이 연인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한 인식은 다소 지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통제 및 집착은 가볍거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화는 정당한 것, 때로 과격한 폭력적 행위를 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했었다.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한 것 또한 연인을 위한 다거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문제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사회 구조가 만들어 낸 젠더의 불균형적 관점(조화진, 문화진, 2021)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며, 평등한 성별 권력의 위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 [나의 통제는 가벼운 것이었음]  
남자랑 연락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 그것 밖에 없었거든요. (사례1)
- [나의 폭력은 실수였음]  
실수로 때린 적도 있었고.. (사례2)
- [나의 집착은 당연한 것이었음]  
좀 당연하게 집착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가벼운 집착 정도. 뭐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그러면 너 좀 치마가 짧은거 아니냐.. (사례4)
- [나의 화는 정당한 것이었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짜증을 내고 울어. 이게 뭐지? 진짜 그때는 진짜 애가 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5)
- [나의 강요는 연인을 위한 것이었음]  
(여친이 자신을 비난할 때) 자신은 여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부정적이게 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일기장도 적지 말라고 하고.. (사례6)
- [나의 성행위는 귀여운 괴롭힘이었음]  
(성행위 관련 여친이 싫다고 했으나) 여친이 너무 잘 느껴져서.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많죠, 너무 귀여워서. (중략) (성관계 관련 여친의 거절 의사에 대해)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운 말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례6)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분노와 수치심

참여자들은 연인의 집착과 통제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남자로서 흔들리고 싶지 않은 존재 의식이 건드려지는 순간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의 데이트폭력을 잘 감내해 왔던 참여자는 어느 순간 옥하며 화가 촉발됐을 때 신체적 폭력 등의 가해 행위를 하게 되었다. 둘이 있을 때는 잘 참아 왔던 연인의 폭력을 타인의 시선 앞에서는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화가 촉발되어 공격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순간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가 이뤄지는 동안에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남성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것에 대한 분노의 촉발이 데이트폭력의 수위를 높이는데 주요하게 관여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타인의 시선에 건드려진 자존심]  
둘이 있을 때는 참았는데 사람들 있을 때 때리면 쪽팔려서 주먹이 나갔어요. (사례1)
-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니까 일어난 분노]  
남자가 여자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 (사례1)
- [여자에게 맞아 자존감이 바닥나는 수치심]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때리면 (축약) 그런 식으로 당해보면 자존감이 많이 깎여 나가요, 진짜. 바닥을 기는 정도. (사례4)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동

신체적 폭력을 하였던 참여자는 내면에 주

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을 비롯해 타인을 폭행한 경향이 있었던 참여자들은 자신의 폭행에 충동성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다수 참여자들은 어려서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도 훈육을 받거나 자신의 감정이 진정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데이트폭력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적 경험 및 성장기의 폭력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Tyler et al., 2011; 홍영오, 2017)을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를 주체 할 수 없어 자행된 폭행]

(여친이 다른 남자애랑 있는거 보고) 여친이 진짜 친구라고 계속 그러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애를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감방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사례2)

[이별 이후 더 심해진 충동성 폭행]

제가 개를 헤어진 뒤로 좀 심해진 거예요. 이게 병이 좀 더 충동성 폭행이.. (사례1)

[어려서 조절을 배우지 못한 분노]

부모님 이혼하시고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니까 어른들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건지 알려주질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망란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어렸을 때는 화가 나면 화나는걸 조절하는 거는 잘 몰랐어요. (사례4)

참다가 터져버린 가해의 억울함

높은 수위의 폭력 행위가 있는 이후에 참여

자들은 공통적으로 후회와 억울함을 함께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참을성과 인내력, 통제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의 분노표출이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은 더욱 깊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이슈를 다룸에 있어 가해자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노력, 특히 분노가 일어날 때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애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짐해 왔던 내적 동기에 대한 인정과 타당화의 과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을 상실한 참을성]

참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이 안나면 갑자기 때린 거예요. 때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례1)

[감정에 휘둘리는 통제력]

제가 그냥 기분 좋고 그럴 때는 그냥 한번만 참다하면서, 막 예민하고 짜증날 거 같으면 못 참고.. (사례2)

[이해불가로 터져버린 인내력]

세 번 참다가 하라고 (여친이) 말했어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참다가 이해안되면 터지죠 (사례5)

남자만 지목되는 사회의 부당함과 여성증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인의 폭력이 먼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감내해 왔던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비롯해 참다가 자행된 자신의 폭행에 부과하는 사회적 시선에 대

한 부당함에도 더욱 큰 억울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들이 호소하는 억울함과 부당함, 여성에 대한 증오의 감정 등이 무엇을 통해 촉발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불 때, 가해자들의 감정적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가해자 인식 개선의 시도들은 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폭력은 목인하는 시선의 부당함]

분명히 여자가 때릴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때리잖아요 그러면 쳐다봐요 저 여기 문신도 있고 그래서 짜증나잖아요. (사례1)

[신고 후 남자만 가해로 인식되는 부당함]

경찰 다섯 대가 왔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만 괜찮냐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말한건 안 믿는 거예요. 짜증 나잖아요. 제가 맞았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사례1)

[신고당한 이후 생긴 여성증오]

아무래도 이제 전 여자친구한테, 헤어질 때 그 신고를 선물로 받아서. 잘못하면 이제 여자 혐오의 단계까지 갈 뻔 했어서. 제가 직접 얘기만 들었던 거를 이제 실제로 당해보니까 충격이 좀 크더라고요. (사례4)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 가

해 경험을 탐구해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남성 6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인 현상학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34개의 소주제와 9개의 대주제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성 교제 초반부터 연인의 집착과 구속이 상당했으며 이성 관계로 인한 갈등은 끝없는 다툼의 주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들로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고, 피해의 양상으로서 시작된 가해는 수위 높은 폭력으로 이어져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다. 가해자들은 가해 행동에 정당성이 있다고 인식했고, 수위 높은 폭력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의해 이뤄졌으며, 참다가 터져버린 분노 행위에 대한 억울함, 남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회에 대한 부당함과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 문제로 설정한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은 어떠한가?’, ‘남성의 데이트폭력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초기 남성들은 연인과의 갈등 속에서 연인으로부터 자신 또한 집착 및 다양한 범주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양방향 폭력(bidirectional violence)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연구(Staus, 2008, 2011)를 비롯해 여성이 심리적 폭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오윤희, 임성문, 2019; 장정윤, 강지현, 2017)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결과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이 자신의 피해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자 한 이유에는 많은

요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의 낮은 죄의식 등 개인적 특성이 관여했을 수 있고, 자신의 가해 행위를 드러냄으로 인해 촉발된 죄책감 및 수치심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신들 또한 피해의 희생자라는 인식을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데이트 폭력 가해 행위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인이라는 관계적 특수성과 함께 갈등의 이슈가 촉발한 상황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해와 피해를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살펴봐 왔던 인식의 틀을 벗어나 관계적이고 상황적인 맥락 안에서 위의 문제를 보다 깊이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성인 초기 데이트폭력을 이끄는 주요한 갈등 주제는 ‘이성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이 주제로 인한 갈등이 교제 초반부터 있어왔음을 호소했는데,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다른 이성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성과 현재 연인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상당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친밀감이라는 주요한 발달 과업(Furman & Shaffer, 2003)의 성취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문제로 뒤엎힐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제까지 간과해 왔던 갈등의 주제, 상황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신 및 집착의 문제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생애 초기 불안정 애착은 거부 민감성 등에 영향을 미쳐(신지연, 최수미, 2017), 상대의 거부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촉발된 적대감이 공격성을 상승시켜(Ayduk et al., 2008), 분노표출의 폭력적인 방식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Levy et al., 2001)는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MZ세대들의 관계 자율성, 서로서로 돌아가며 사귀는 문화 등이 형성한 불신의 이슈는 시대적 배경으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 세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관계 만족도는 데이트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Flynn과 Graham(2010)이 가해의 동기로 소개한 삶의 환경(current life circumstances)요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만족도가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촉발요인과 맞닿을 때 데이트폭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귀 뒤로 흥미가 떨어지거나 연인의 집착을 힘겨워하고, 서운함과 불신이 쌓이는 가운데 만족감이 떨어진 결과 상대 연인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또다시 연인의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관계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만족도에 기여 하는 개인 내적 요인과 상황적, 관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낮은 관계 만족도는 가해 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Lewis & Fremouw, 2001; 오선영 & 김영희, 2007)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매개하는 요인들로 애착의 요소들(김광은, 이위갑, 2005; 김명숙, 2008) 및 갈등 해결의 전략(Crammer, 2000) 등을 더 주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인의 폭력에 대하여 가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별 가해 동



기 차이를 탐구한 Kelley 외(2015)의 견해에 반하여 남성의 가해가 자신의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폭력은 신체적 강인함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이 취하는 신변 보호의 자기방어 성격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관계적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방어의 성격이 강한 특성이 있었다. 즉, 여성의 자기방어와 남성의 자기방어 성격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자기 싫어서’ 자신 또한 연인처럼 언어폭력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렇듯 남성의 자기방어는 관계 권력 및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 동기의 ‘힘과 통제’ 요인을 이제까지 젠더 불균형 이론으로 해석해 왔던 논리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깨어진 힘의 불균형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가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속에는 자신의 폭력 행위를 가벼운 것, 실수, 당연한 것 등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조한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앞서 젠더 불균형적 관점의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가벼운 집착’으로 의상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인식(Lichte & McCliskey, 2004)이 관여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성이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벼운’ 차원의 것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사회적 젠더의 권력 구

조 속에서 형성된 인식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남성이 리드하는 젠더의 불균형적 요소들이 가해 행위 속에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음도(김진숙, 문화진, 2021)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젠더로 인해 형성된 불균형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폭력이 이뤄지는 관계 구조 속에서 젠더의 불균형적 시각이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함께 해석해 나갈 필요도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의 통제에 여성이 순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젠더의 관점으로 폭력이 이뤄지는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남성에게는 더디게, 여성에게는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수위가 높은 신체적 폭력은 참여자들의 오랜 인내와 참을성 끝에 자행되며, 그 이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이 자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김진숙, 문화진(2021)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성의 데이트폭력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위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자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참여자들의 진술 속에서 ‘둘이 있을 때는 참았는데...’라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보면 두 사람 사이 성별 권력의 위계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소개한 Lichte와 McCliskey(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성은 순응성을 실현하고 남성은 주도성을 행사하는 가운데 폭력이 이뤄진다는 관점은 본 연구 결과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남성의 폭력은 오랜 인내심 끝에 자행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Kelley

et al., 2015)과 사회적 인식에 지배되는 남성 권력에 대한 지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이 느낀 분노 깊은 이면에는 마주하기 힘든 수치심이 자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참여자들은 바로 이러한 수치심이 건드려진 순간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참여자들이 느낀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부과된 남성성, 권력, 힘에 대한 기대의식으로부터 비롯됐음도 알 수 있었다. 남들의 시선 앞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들킨 순간,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남성성의 폭력(masculine violence)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Chodorow, 2011).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은 상대를 제지하기 위한 힘과 통제의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 수치심으로 자극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폭력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남성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참아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에 의하여 오랜 시간 인내하지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성의 권력이 상실된 경험을 하는 순간 수위 높은 폭력 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기대가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는 중에 있으며, 남성으로 참아야 한다는 인식과 남성으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상반된 인식이 상충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수위 높은 폭력을 행사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충동을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Kelley외(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폭력이 자행될 수 있

다는 점을 지지할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는 감정 조절의 실패로 자행된 폭력을 더욱 용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달리 말해, 남성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데, 이것은 남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인식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남성은 보다 더 ‘잘 참고’, ‘잘 인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기대가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자책과 후회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들이 호소한 사회에 대한 ‘부당함’ 및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남성들에게 부과된 사회적 관점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보다 앞서 참여자들은 한 번의 수위 높은 폭력으로 이제까지 참아 왔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이 허용되고,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남성은 계속해서 참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이로 인해 잘 참지 않은 결과를 더 비난받는 현실이 있으므로 남성에게 부과된 편향적인 사회적 시선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폭력으로 인해 신고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호소를 묵인하는 현실 속에서 사회의 부당함을 느꼈고, 이로 인한 여성의 증오심이 더욱 증폭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호소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의 배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교제 중

폭력은 불가피한 것' 또는 '폭력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음' 등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이미호, 2020)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는 남성이 여성의 폭력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인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남성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실에 부당함을 호소하면서도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들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다수 부모님의 갈등과 이혼을 경험했고, 어려서부터 친구들과의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문화에 익숙한 영향을 받아 왔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참여자들에게 폭력적인 관계가 보편타당한 관계로 인식되는 데에는 내외적 환경의 영향이 모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성의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비롯하여 가정 및 학교 등의 중간체계 속 형성된 관계 문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의 한계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로 여섯 명의 남성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연구 주제에 부합한 참여자를 찾아 독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향후에는 남성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 주제에 부과된 사회적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다 많은 남성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인의

폭력을 경험한 맥락적 배경이 있었는데, 상대 연인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데이트폭력의 가해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JIBS제주방송(2023.02.12.). “왜 다른 남자 만나” 주먹질이 감금, 상해로. ‘데이트폭력’ 심각. [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8506?feed=na](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8506?feed=na) 에서 2023년 2월 12일 인출.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김래은, 구상미, 최선미 (2020).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21(7), 244-254.

김명숙 (2008). 성인애착유형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59-74.

김진숙, 문화진 (2021). 성인 남녀의 통제 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젠더 감수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727-742.

세계일보(2023.02.14.). “데이트폭력 신고하자.. 옛 연인 스마트워치 자르고 감금한 20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1450316?OutUrl=naver> 에서 2023년 2월 16일 인출.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

- 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오선영, 김영희 (2007).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 데이트관계 만족도, 자아 존중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1-27.
- 오윤희, 임성문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23-245.
- 오윤희, 임성문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성차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8(1), 49-77
- 이미호 (202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1(3), 35-47.
- 장정윤, 강지현 (2017). 대학생의 대상관계수준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307-327.
- 치안전망 2023 (2023). 치안정책연구소.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한국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Abramsky, T., Watts, C. H., Garcia-Moreno, C., Devries, K., Kiss, L., Ellsberg, M., & Heise, L. (2011).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rec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BMC Public Health*, 11(1), 109.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 87-100.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775-782.
- Campbell, J. C. (2002). Health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Lancet*, 359 (9314), 1331-1336.
- Chodorow, N. J. (2011). *Individualizing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Routledge.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7.
- Elmquist, J., Caitlin Wolford-Clevenger, C., Zapor, H., Febres, J., Shorey, R.C., Hamel, J., & Stuart, G. L. (2016). A gender comparison of motivations for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 186-203.
- Fawson, P. R. (2015). Controlling behaviors as a predictor of partner violence among heterosexual female and male adolescents. *Partner abuse*, 6(2), 217-229.
- Flynn, A., & Graham, K. (2010). "Why did it happen?" A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arch on perpetrators' and victim' explana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 239-251.
- Furman, W., & Shaffer, L. (2003). *The rol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P. Florsheim (E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 and seco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pp.3-2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Jennings, W. G., Park, M., Richards, T. N.,

- Tomsich, E., Gover, A., & Powers, R. A. (201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hysical abuse and adult dating violence using a casual inference approach in an emerging adult population in South Korea. *Child Abuse & Neglect*, 38, 1902-1913.
- Kelley, E. L., Edwards, K. M., Dardis, C. M., & Gidycz, C. A. (2015). Motives for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gendered analysis. *Psychology of Violence*, 5(1), 56-65.
- Levy, S. R., Ayduk, Ö.,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pp. 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S. F. & Fremouw, W. (2001). Dating Violenc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1), 105-127.
-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344-357.
- Neal, A. M., Dixon, K. J., Edwards, K. M., & Gidycz, C. A. (2015). Why Did She Do It? College Women's Motiv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Partner Abuse*, 6(4), 425-441.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 185-194
- Straus, M.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 790-811.
- Straus, M. A. (2008). Dominance and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 Straus, M. A. (2011). Gender symmetry and mutuality in perpetration of clinical-level partner violenc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4), 279-288.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3-33.
- Tyler, K. A., Brownridge, D. A., & Melander, L. A. (2011). The effect of poor parenting on male and female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Violence and Victims*, 26(2), 218-230.

1차원고접수 : 2023. 04. 14.

심사통과접수 : 2023. 06. 20.

최종원고접수 : 2023. 06. 30.

## A Qualitative Study on Early Adult Male's Dating Violence Experience

Kyung Eun Park

Semyu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Recently, social problems related to dating violence have been increasing day by day. It is necessary to find clues to solve this problem by deeply exploring the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in early adult males, who are considered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early adult males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Phenomenology method. As a result, late adolescent and early adult male's dating violence experience were categorized into 38 sub categories and 10 essential categories. The early adult male's dating violence experience "Patient dating violence", "Endless conflict relationship problem", "Love with poor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jury and shame that touched a man's pride", "Uncontrollable anger and impulses" and "Social injustice and hatred of woma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comparative analysis with previous studies and limitation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early adult, male, damage, phenomenological research